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후 2시부터 있는 월례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남선교회 회장님들은 월례회 모임 후 3시까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인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추석감사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연회 환경위원회가 주최하는 환경회복 세미나가 8-9일 오전 10시부터 아현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9월 18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전성은 선생이 <로마서>를, 김기석 목사가 <성경 인물 이야기>를 맡고, 저녁에는 김재홍 목사가 <신앙 다지기>를 진행합니다.

푸른어린이도서관의 가을학기(9월 9일-11월 28일) 문화강좌를 알려드립니다.

- 일어회화 초급(화/10시, 문금석 권사)
- 한문서예 초급(목/13:30, 이봉옥 권사)
- 영어회화 초급(화/10:30, 금/14:00, 장혜숙 권사)
- Fashion Painting(금/16:00, 광권희 집사)
- 재미 솔솔 이야기나라(수/17:00, 7-9세 어린이, 김희우 선생)

광상언 교우(변호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도 드립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선정해 읽으십시오. 추천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새교우 소개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백로(白露)절기를 맞아 진주보다 고운 아침이슬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사로 들떠있던 우리들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이슬처럼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논밭의 오곡백과가 뜨거운 가을햇살과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그 맛과 빛깔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의 햇살과 성령의 바람으로 아름답게 여물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드리워진 억압과 단절과 탐욕의 어두운 구름은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름은 이 땅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이들을 점점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몸을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주십시오. 어두움을 뚫고 이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기석 김희우 조병무 송양진 방문성 박해경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일량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김지윤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방민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이한림 김명희 임원민  
 임수연 임승동 백해숙 임창선 전월수 정복순 문복순 최현선 오자영  
 김지호 박지인 손성현 황지현 안준용 곽상준 최경미 안종일 정현주  
 김민정 권미숙

**월정현금:**

박범희 박미영 이소순 송의섭 이동천 왕수명 김명순 김순자 전영규  
 김경수 김영순 최철수 곽권희 김수진 김승현 윤성종 김윤정 이병철  
 김현진 장재영 김재영 김현영 정원석 류건형 이주은 이현순

**감사현금:**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방준 고숙이 박영희 김민정 김주경  
 이은옥 오자영 조재훈 김정애 안정숙 박상규 신연화 오래된 미래  
 생명평화역사기행참가자 무명1

**생일감사:** 문홍일 박병규 무명1

**녹색꿈현금 :** 홍순구 안홍숙 이형석 이서현(누계 : 2,170,000원)

|  |     |     |                  |     |
|--|-----|-----|------------------|-----|
|  | 장혜숙 | 장혜숙 | 전<br>합<br>숙<br>회 | 노봉님 |
|  | 노순옥 | 정경례 |                  | 정경례 |
|  | 임정자 | 임정자 |                  | 임정자 |
|  | 문영혜 | 박경선 |                  | 문영혜 |
|  | 안정숙 | 박애순 |                  | 안정숙 |
|  | 박홍재 | 곽권희 |                  | 이인섭 |
|  | 박효선 | 허정윤 |                  | 심   |
|  | 최숙화 | 권미정 |                  | 최숙화 |
|  | 이순정 | 김금순 |                  | 오복순 |
|  | 이형숙 | 권미숙 |                  | 권미숙 |
|  | 안홍숙 | 오현정 |                  | 오현정 |
|  | 백해숙 | 정옥영 |                  | 백해숙 |
|  | 송양진 | 유경순 |                  | 김명희 |
|  | 이영란 | 박미영 |                  | 윤정화 |
|  | 박해경 | 최영혜 | 박해경              |     |

# 도적

뭘 좀 얻어보겠다는 도둑놈 심보로  
 사막에 갔더니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선 것 같더군요  
 뭘 얻기는커녕  
 있는 걸 내놓아야 할 판이더군요  
 옷을 내놔! 이 도적놈아!  
 모자를 내놔! 신발을 내놔!  
 사막에서는 다 빼앗길 판이더군요  
 몽땅 털리고나면  
 나는 더 벗을 것도 없는 허공처럼  
 가난해지는 것인지  
 큰 도적에게 잘못 걸렸다는 느낌  
 다 내놔! 다 내놔! 이 도적놈아!  
 살을 내놔! 피를 내놔!  
 몸뚱이를 내놔!  
 사막이야말로 정말 큰 도적이더군요  
 어디론가 도망쳐야 하는데  
 사방이 다 사막이더군요  
 (최승호)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의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없는 것에 조바심 내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도 일을 쉬실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욕망의 거센 물살 멈추어 세우고 주님과 이웃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십시오. 아멘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월례회        |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
| 찬양인도 / 장성호 | 기도 / 이한림 집사        |

| 다음 주<br>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기석 목사 | 조병무 장로 | 권혁순 집사 |

| 9월 | 영접위원 | 조병무 하현철 조관행 이형숙 최성애 홍선희 |
|----|------|-------------------------|
|    | 헌금위원 | 조병무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영혼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것은 본디 나눠 쓰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저의 평안함과 제 마음의 평화는  
저의 재능이나 성취나 그것들로 얻은 지위에 있지 않고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한테서 온 것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주님, 가난과 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마음 아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만사에 부족한 것이 마음 아픕니다.  
때로 안이한 평화, 안이한 행복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중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픕니다.  
당신께 아픈 상처를 입혀드린 것도 마음 아픕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저로 하여금  
장차 저 자신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께서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영혼의 온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진실을 찾아나가는,  
인내로 참고 견디는,  
남을 위하여 자기를 뒤로 물리는,  
안으로 숙련된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는,  
그 영혼의 온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냉정함을 털어내 비워주십시오.  
저의 편파적인 정의에 만족함을 털어내 비워주십시오.  
생명 있는 모든 곳에

공의(公義)가 편만할 필요를 알게 될 때까지  
주님, 저를 털어내 비워주십시오.



남들이 느끼는 것을 저도 느끼도록  
주님, 저에게 민감함을 주십시오.  
남들의 자리에 서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상상력을 주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사람 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셨던  
당신의 자비는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 자비를 저도 나눠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곧 밤입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제 가까이 오십시오.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 되시어  
제 가슴에서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새벽을 당겨주십시오.  
의로운 태양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빛을 비출 그때를 앞당겨주십시오.

부드러운 달빛입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이 어두운 길에서 제 걸음을 인도하십시오.

별들이 반짝입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거짓에서 참을 가려내어, 이제라도  
당신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이현주 목사가 읊고 엮은 <<세기의 기도>> 중 렉스 채프먼의 기도